

\*\*\* 이 주간에 묵상할 말씀 \*\*\*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나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6,7

\* 민경엽 목사 방송 설교 : AM 1190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30분

□우리의 감사

- **십일조** : 강그레이스 강순희/정희 김경숙 김기자 김성수/유순덕 김일수/희식 김줄리아나 명성천/경란 문승용/은주 박내원/소정 박민철/김경숙 박사라 백승우/경화 신동국/소피아 신영구 오제임스 우대옥 유병호/혜진 이명원/정균 이범식/영순 이비비안 임창열/내숙 정문수/명옥 정엔젤라 최경호/사라 최유성 한홍철/송혜정
  - **감사헌금** : 김영임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문승용/은주 박내원/소정 양은영/정자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최유성
  - **주일헌금** : 강순희/정희 김수영 김영국/연권 김영애 김옥인 김완섭/향영 김일수/희식 류경진/마리아 류성민 민병수/은주 박태기 배준한/광자 서상연/지연 성연선/병연 신동심 심혜연/김현태 양기수 양은영/정자 윤에스터 이민중/수남 이비비안 임막동/정숙 전영각/경심 조종현/미셸 최유성 한홍철/송혜정 무명11명
  - **건축헌금** : 김옥인 김일수/희식 송영찬/영진/영수 윤에스터 이비비안
  - **선교성금** : 한홍철/송혜정
  - **선교지정성금** : 김성수/유순덕 (이영대선교사)
  - **소원예물** : 김정훈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과 순발력을 주옵소서)
- 별도의 헌금 시간은 없습니다. 교회당에 오셔서 직접 헌금하시거나, 교회 주소로 헌금을 보내주시고, 헌금자 명단에 빠진 분은 연락해주시고,  
● 115헌금은 한(1) 가정이 한(1) 주에 \$5이며, 모기지 헌금과 함께 건축헌금에 포함됩니다.  
**헌금 총계 : \$9,285.00**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빌4:18).

□예배 도우미 .....

		3/12	3/19	3/26	4/2
대표기도	주일 1	정문수	송황의	우종복	강손희
	주일 2	정문수	송황의	우종복	강손희
	토	3/11우정은	3/18김신희	3/25김줄리아나	4/1유순덕
1부간식봉사	마중물(김지수)	소망(임창열)	반석(백승우)	사랑(박내원)	
2부점심봉사	마중물(김지수)	소망(임창열)	반석(백승우)	사랑(박내원)	
안내위원	이명원 이민중 임창열 임내숙 박내원 박소정				
헌금위원	백승우 이민중 박민철 박소정				

1. 애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이 미국과 한국 전역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2. 튀르키예, 시리아,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의 고통 받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3. 우리교회가 후원하는 러시아의 김문일, 김성숙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주소서.
4. 우리 교우들이 기도하고 노력하는 VIP(전도대상자)가 우리교회에 출석하고 꼭 신앙을 회복하게 하소서.
5. 최근에 오신 새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주소서.
6. 교회의 각종 기도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소서.
7.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하여 강단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 지도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하소서.

8. 요일별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	환우들	월	목	화	금
	박태기 박시우 김병은	김익현 강정희 켈리키포드	양정자 김연제 김경숙	허시철 신소피아 백덕희	나종원 최영자 서상연

<파송> 캄보디아/김창규 · 정영란(1가정)

<후원> 나미비아/임선희, 레바논/이주열 · 지희, 러시아/길요한 · 남지연, 김문일 · 성숙, 멕시코/전재철 · 순혜, 미얀마/이 동 · 수잔, 조현직 · 정윤희, 브라질/이영대 · 애림, 인도/김덕래 · 초미성, 한국(본부)/이주희 · 변희예, 미국/박상목 · 사라, 인도네시아/김귀영 (12가정)

<기관> 미국 컴미션(이재환)  
북한 새터교회/강철호(한국), 그날까지선교회(UTD)  
중국 GBM(안경숙)  
한국 이랑학교(정용갑), 합동신학원 (6기관)

담 임	민경엽 목사	시무장로	우종복 장로
행정	류경진 목사		강순희 장로
교육부	신소피아 선교사	찬양팀 리더	백승우 장로
한국학교	정영숙 사모	찬양대지휘	조종현 집사
		반 주	임종혁 전도사
			김신희 권사 류마리아 사모

주일예배 : 1부 - 8시 / 2부 - 11시  
토요새벽예배 : 6시 30분

- 교 육 부: 주일 오전 11시[108]      •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금 5시30분 [본당 & 라이브톡]
- 주일남성중보기도회: 오전 10시[101]
- 주일여성중보기도회: 오전 10시[107]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el. 714-403-2193

주 일 예 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예배초청 I nvocation	민경엽 목사 · 웨키나 찬양팀	
찬양과 경배 Praise and Adoration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꽃들도) 오늘 숨을 쉬는 것(감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430)	
	사도신경	
찬양	만유의 주재(32)	
기도 Prayer	정문수 장로	
	다같이 /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기쁨213)	
찬양	충만	2부/에이레네 - 주의 크신 사랑이
말씀선포 Worship thru Proclamation	< 내적 치유 시리즈(7) >	
	“네 분노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1-15(구약 p.5)	
헌금 Worship thru Offering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오늘 나는)	
인사와 교제 Koinonia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찬송 Worship in Song	선한 능력으로	

말씀묵상새벽기도회	토요새벽예배
월-금 / 오전 5시 30분	오전 6시 30분
<b>민경엽 목사</b> 본당 · 라이브톡	<b>민경엽 목사</b> 본당

\* 말씀묵상새벽기도회를 집에서 “라이브톡”으로 참여하기 원하시면 류경진 목사님에게 알려주십시오.

# 평범한 예배가 소중한 이유

며칠 전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다가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플라타너스 한 그루에서 짝이 돌아나는 모습이 너무나 웅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니 가지마다 잔뜩 터질 것만 같은 봉우리들이 갓 태어난 신생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봄날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희망찬 새봄에 켄터키 지역의 애즈베리 대학교에서 2월 8일부터 18일간 계속된 부흥의 스토리가 우리의 가슴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정규적인 학교 채플을 마치고 기도하던 19명의 학생들이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을 필두로, 달려온 학생과 교수들의 찬양과 기도와 간증이 끊이지 이어졌고 미 전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 수많은 부흥을 사모하는 이들이 그 자리를 찾았습니다. 강당이 차고 넘쳐서 길 건너 애즈베리 신학대학원 채플실에도 동일한 형태의 기도가 이어졌고, 급기야 학교 당국은 학사 운영과 안전사고를 이유로 집회를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부흥을 사모하는 열기는 여기저기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애즈베리 부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배울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끊임없이 부흥을 사모한 결과 일어난 부흥입니다. 20세기 이후 애즈베리는 이런 류의 부흥이 8번째입니다. 그 대학교의 졸업생들은 계속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후배들이 경험하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특별히 1970년 2월의 부흥을 경험한 졸업생들인 교수, 목회자, 선교사들이 모교의 부흥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Hong Too Leow 박사는 말레이시아 신학교의 교수였는데 애즈베리의 방문교수로 왔다가 부흥에 대한 환상을 보고 수년간 부흥을 위해 기도해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간구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함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르짖고, 또 모든 중보기도모임에서 간구할 때 부흥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특별한 강사나 인물이 중심이 된 부흥이 아니라 평범한 예배, 늘 드리던 채플 가운데 임한 부흥이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의 부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특별한 지도자가 일으킨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때처럼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 십만 명이 넘게 회심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릴 때 하나님의 부흥은 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드리는 매주일과 토요일의 예배, 그리고 매일의 새벽기도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부흥회를 열지 않아도, 어떤 특별한 설교자의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어도 어느 날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홀연히 성령이 임하시면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평범한 예배가 소중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M]



“마중물순”(이비비안 장순옥 김지수 김영임 표미희, 2/26)

## □ 지난 주 방문하신 분

- 김경숙 성도
- 조경자 사모
- 한영옥 성도(인도: 서상연 집사)
- 김현태(심혜연 성도 남편/ 인도: 최사라 권사)
- 최명숙 성도(인도: 김영애 집사)

## □ 교회소식.....

- 1. 사순절 시작** : 지금은 4월 8일(토)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 ① 경건의 시간(QT)을 회복합니다.
  - ② 성경 일독에 더욱 힘쓰시고 매일의 새벽기도회(라이브톡 포함)에 참석하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 ③ 더욱 **나도 한 사람 전도**에 최선을 다 합시다.
- 2. 토요새벽예배** : 토요새벽예배는 공예배입니다. 모든 제직들은 꼭 참석하셔서 주일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 후에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3. 제자훈련 모집** : 제자훈련 1단계(일대일양육, 16주 코스)를 받기 원하시는 분을 모집합니다.
  - **자격** : 한가족모임 수료자
  - **신청 마감** : 다음 주일(19일)까지
  - **신청** : 민미숙 사모(714-403-2418)
- 4. 전도합시다! 나도 한사람 VIP(전도대상자) 명단** : 계속 제출해 주십시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크리스틴리(김연권) 박소연, 최명숙, 정승은, 홍진경(김영애) 김향영, 민은주, 윤형기, 윤미재(김완섭) 노덕장(민경엽) 이승민, Bordon So, Nigh Jroung, Justin Chong(민병수) 민영주(박경자) 이용준, 이은정(박종미) 김영조, 류순미(박형근) 한영옥(서상연) 오요환(신영구) 강승범(유병호) 강혜진(유혜진) 김쌍순(이정화) 이복현(임정숙) 엘렌, 제니홍, 홍이(정명옥) 손혜림, 조규승(조미셀) 준규(무명) (총 31명)
- 5. 큐티 교재** : 생명의 삶 4월호가 준비되었습니다.(\$5)

## □ 교우동정.....

- **소천** : 한재연 집사 부친(한국)
- **출타** : 이민중 장로 이수남 권사

## □ 러시아에서 온 편지.....

- **기도제목**
1. 장기화 되고 있는 전쟁으로 막대한 인명, 재산 손실, 고아, 난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전쟁이 빨리 끝나 모든 일상과 선교가 회복 될 수 있도록).
  2. Re-entry Visa 가 출국 전 잘 나와 사역지로 복귀할 수 있도록(출국 3월 8일).
  3. 노보사진스키 은혜교회 교회 건축을 위해 시청에 땅 임대를 신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허락이 잘 나와 올해 예배당 건축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세요.(설계, 건축회사 선정, 일군,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4. 심성형, 조영선 선교사님이 새로운 내지 사역을 위해 장소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잘 찾아 내지에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5. 2023년도 스파스크 지역에 현지 목회자 연장 교육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세요(러시아 교회 안에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잘 정착 되도록).

2023년 3월 김문일, 김성숙 선교사 올림

# 토요새벽예배

11일 / 오전 6시 30분

예배초청 / 웨키나 찬양팀

찬양과 경배 /

이 곳에 생명샘 손아나(꽃들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430)

교독문 50번 / 시편 116편

찬양 / 충만

기도 / 우정은 권사

성경봉독 / 사무엘상 21 : 1 - 15

말씀 / 민경엽 목사

## “화근”

찬양 / 가장 귀한 삶

인사와 교제 / 다같이

찬양 / 행복



“에원순”(2/17)

김신의 신소피아 신동국 한홍철 송혜정 강정희(강손희) 이명원 박소정 이범식 이영순 김화실 김익현 박내원



“사랑순”(2/24)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사119:105).

주일(12)	월(13)	화(14)	수(15)	목(16)	금(17)	토(18)
수15-16	수17-18	수19-20	수21-22	수23-24	삿 1-2	삿 3-4